

<2004년 4월 18일 주일말씀>

감동의 빛을 발하라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6절-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주일 단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04년 4월 18일 주일입니다. 온 세계가 모두 이 단상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전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온 세계의 하늘을 시대에 쫓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을 지키러 온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지키러 안 온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전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전체 찬양곡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입니다. 악단들은 찬송가 179장을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성경을 선생님이 직접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사회도 보고 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군데 있습니다. 봉독한 것 외에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 모두 기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찬송을 찾았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감동의 빛을 발하라’입니다. 오늘은 감동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찬송가도 이에 맞는 것을 찾았는데 바로 179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감동해 주셨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찬 179장) -2절까지

섬리의 노래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말씀 중에 빛나는 주님’입니다.

이 노래가 또 주일 말씀에 해당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밴드 악단과 오케스트라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빛나는 주님-2절까지

다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감동의 빛을 발하라’입니다. 다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감동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따라 하게 되면 외워지게 되고 암기 되게 됩니다. 주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주의 주제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신입생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두 멀고 가까운 길에 왔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감화 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저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서 봤을 것입니다. 저주 받은 자식, 저주 받은 놈, 잘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죽인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해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은 그를 죽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죄 값을 받아야 돼.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데려다가 저주하고 죽이고 했으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저주 받은 자, 잘 죽은 사람.” 이라 하고, “우리는 잘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진 것이라 했습니다.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있다 나올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죽일 놈이다.”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근본을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예수가 저주 받아서 죽었다. 잘못해서 죽었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감동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바울 선생 자신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심의 감동을 받고 말하는 자는 절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주받을 자라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사탄의 주관을 받고 악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 깨닫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근본을 깨닫고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저주 받아 죽은 자라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저주 받은 자라

고 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 세상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고 그 생명이 죽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었다. 만인의 죄가 있는데 그냥 해서는 도대체 그 죄를 감당 못하니까 자기 메시아를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죄 값을 치루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됐다. 그 죽음이 악한 자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예정으로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예정대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이상세계, 하나님의 뜻을 펴고 온 인류에 복음을 전해서 바로 지상에 천국을 이루려고 왔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신약의 성경 말씀대로 옛날의 선지자들을 모르고 죽이듯이 예수님도 모르고 죽었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예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며 원 근본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을 다른 인식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예정대로 죽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컸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도 열네 살 열다섯 살 때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닌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 생활 안하고 산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스무 살 서른 살까지 계속 교회에 다녔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밖에 이해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물이 깊이 들지 않도록 나를 빨리 빼낸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묻었을 때 바로 가서 빨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래 돼서 빨면 잘 안 빨아집니다.

이와 같이 선생은 기성에 물들지 않고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파고 들고 직접 내가 인식했습니다.

교회에 전혀 안다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안 풀니다. 이미 고정관념에 차서 그릇된 인식관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자라야 “예수는 주다. 그리스도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고 하니, 자신도 성령으로 감동받고 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동받고 행한 일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으로 감동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감동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메시아라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도 그러했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근본으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 때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고통 받았다. 저 사람 죄 값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다. 저 사람 죄 때문에 고통 받고 있어.”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 동안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죄 값이다.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죄 값이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감동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쥐서 전하게 했는데 그것이 저주 받아서 그랬다 그러겠습니까. 무지한 자들로 고통을 받았다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사람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감화시키는데, 교육하는데, 바르게 만드는데 온전한 말씀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시대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저주 받아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감히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성에 의해서,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마귀의 주관을 받아서, 자기의 주관을 받아서 자기 인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죄 값이다. 저주 받아서 저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본문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잘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안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가서 죄인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

를 잘 안줍니다.

여러분에게는 단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가도 단상 생활을 못하고 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한 것만 맞기 때문입니다. 전에 단상에서 모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꼬집어 내리고 그랬잖습니까. 잘못된 증거를 하니까 교역자들이 꼬집어 내림을 받고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캠퍼스의 간사 CL,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다 끌어 내렸습니다. 감히 하늘을 잘못 증거하고,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자를 잘못 증거한다고 끌어 내렸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은 회개해서 단상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역자들이 이성의 범죄를 저지르고 단상에 서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6월부터는 일일이 모두 개인 점검을 해서 서서히 갈 사람은 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가서 다른 것을 해야 될 사람은 다른 것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날아다니며 역사를 펴는데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사회를 봐도 뽐뽐해야 됩니다. 날아 다녀야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혼자 단상도 끌고 다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휘하고 또 배운대로 컴퓨터에 가서 노래를 찾고 조정하고 다시 와서 지휘하고 이것 저것 다합니다. 단상에 열가지 스무가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다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다 시켰는데 지금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본문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깨달았습니까.

다음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흑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으며 마음도 고치고 성격도 자꾸 고쳤습니다.

요즘 성격을 고치겠다, 마음의 잘못을 고치겠다 하며 회개의 편지를 써서 섭리사 전체에서 1등한 애가 있습니다. 가장 편지를 감동적으로 쓰고, 어떤 문학적인 것보다도 감동적으로 쓰고 자기의 회개를 자주 하고, 그 회개가 이성의 범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조금만 좋아했어도 회개한다 하고, 그

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조금 미워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막 뛰는데, 몸뚱이는 하나인데 모임에 참석 안했다고 눈총을 줘서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회개 편지를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빨리 감동받고, 선생님을 깨닫고 목숨 걸고 가겠다고 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1등을 먹었습니다. 그 1등을 누가 먹었다고는 안하고 그 개인에게만 편지를 써줍니다.

“니가 세계의 30-40개 나라에서 편지를 쓰는데 1등을 했다. 보상은 아마 오랫동안 지급할 것이다. 그대로 가기를 바란다. 만일 네가 거기서 가다가 탈락되면 또 2등 짜리가 1등이 되겠지만 열심히 하여 네게 준 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감동의 빛을 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동해서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억지로 나왔습니까. 감동해서 나온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억지로 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제일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억지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앉았으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 특별히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의 사람 보고 감동되고, 뒷 사람 보고 감동되고, 이상하니 교회 앉아 있으니 분위기 보고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감동에 대해서 말씀 하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3시간 30분 정도 말씀을 했는데 언제 한번 끝까지 하는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언제 철야할 때 쓸 수 있는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계 이야기를 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단상을 갖다 와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 영계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요새는 말씀이 막 쏟아져서 다 기록도 못하고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서 비디오를 틀어 놓고 녹음을 해버립니다. 벼룩 생각난 것을 쓰려면 10장씩 써야 됩니다.

오늘 감동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 받고 계속 감화받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시대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그게 이 시대 성경입니다. 이 시대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감동될 것입니다.

성령은 감동을 주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자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감동의 신,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특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한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도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신도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도 감동을 줍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3위 일체입니다. 그러나 크게 성령을 감동의 신이라 하는데 성령의 본질을 배워야 감동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못할 것도 하게 되고, 누가 일하자 하지 않아도 감동되면 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동받을 일을 하면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받을 조건을 세우면 감동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진리가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나를 증거하리라 했습니다. 시대의 진리가 나타나면 그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옳은 진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재림 때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물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증거 해왔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새로운 역사가 왔을 때 구시대를 증거합니다. 그 시대 때는 그 시대를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금되고 핍박받고, 그리고 주권자에게 눌림을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 정권이 끝나고 다른 정권이 되었을 때 옛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약 때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이야기 하면 걸릴까봐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었구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무지한 자들한테 죽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죽었구나. 자기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였구나.’

예수님은 미국이 죽인 것도 아니고 스위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독일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이웃 나라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과 정치인이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 전주 쪽 중고등부 학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중고등부 배00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영화를 봤는데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나오다가 너무 분개해서 시대를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네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고난을 줬네요.” 그랬습니다.

마땅히 사도 신경에는 악한 자들, 유대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아시죠 하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니 말이 맞다.” 하고 답을 줬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고 떠드는 도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생물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돌대가리라 하고 무식하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소리 지른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 맞는 것은 온 인류가 저것은 맞다 하고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맞는 것은 맞습니다.

시대가 다 못하면 두고두고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메시아라고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해왔어도 메시아라고 할 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이야기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맞는 것은 어린 아이 혼자서 이야기해도 맞는 것이고.”

그것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도 사도 신경을 그렇게 했단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써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 종교가 거진 집권하 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신교인들이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면 당장 쫓아다니며 죽이고 핍박이 더했을 것입니다. 핍박하는 그 족속들이 두고두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에게 고난을 줘서 죽였단 말이나.” 하며 쫓아다닐까봐 그

렇게 못쓰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한번 지나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은 지독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사도 신경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했는고 하니 “아 여기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 이상하다. 이단이다.” 그럴까봐 사도신경을 했지, 실상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때가 지금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단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는 신부(神父)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이 단상을 지켰습니다.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루터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고서 목사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니까 제자시대, 사도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외국에 나와서 한 3년 동안 있으니까 목사들이라 계속하기 시작했고, 또 선생님이 있을 때도 중직자들을 목사들로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근본은 목사 시대가 아니라 사도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 조정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선포하면 다 조정이 되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쓰기는 새 시대 물건을 쓰고 행동은 옛날 시대 하든지, 포장은 새 시대 것인데 속은 다른 것이면 쓰겠냐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단상의 커버는 한국 것입니다. 미술부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안은 외국치 단상입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쓰겠냐, 다 똑같아야지 하고서 단상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단상은 내가 사왔으니까 내가 쓸 것입니다. 나중에 뜯어서 기념하려고 한국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뜯으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이 시대를 살면서 포장은 구시대 포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뛰면서 뭣 하러 구시대 포장을 합니까. 포장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입니다. 사도 목사님이라 해도 됩니다. 나중에는 사도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제자라 해도 됩니다. 제자가 얼마나 큼니까. 여러분들, 제자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는 신학교 나오면 목사가 된다 하지만 여기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다 듣고 선생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좇을 때 수석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가 있고 수석제자가 있습니다.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수석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감동의 신입니다. 여기서 글을 쓰면서 성령에 대한 공부를 5분에서 10분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 합니다. 위(位)는 각각이고 일은 똑같이 하십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성부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신, 성자는 예수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2위 일체밖에 안됩니다. 말은 3위 일체인데 실상은 2위 일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근본을 이야기 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보겠습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듯이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는 아들 입장이고, 성령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모형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삼위일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입니다. 천주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해!” 하고 명령을 하지만 어머니는 감동을 줍니다. 밥을 해서 먹여주고 옷 사주고 감동을 주면 “아 나 이제 말 잘들을 거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밥해주고 옷사주고 그러는 것이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죽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냥 무조건 해댁니다. 그것을 보고서 말 듣지 않던 애들이 하게 됩니다. 장남이 막 해대면 차남들은 보고서 따라 합니다. 말을 안듣던 애들이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실존적인 자입니다.

성부는 말로써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자는 시범을 보입니다. 가서 실천을 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 아닙니까. 가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실존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는 실존 인물, 견본 인물,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장남이 말 안 듣는 차남들이 따라 하게 본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장남이 아버지처럼 “너 안하면 죽인다. 너 발로 짹 차버릴 거야. 이것이 뭘 모르고 그냥?”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남들은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님은 가정의 어머니처럼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감싸주고 그렇습니다. 성령은 감동의 영, 감싸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명령하면 감싸주고 감동을 줍니다. 어머니들이 감동을 잘 주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클 때 아버지가 앞산에 지진이 나도록 팡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는 쳐다보면서 “아니, 좋은 말로 하지. 재 귀청 나가겠네.” 그랬습니다.

“말을 안 듣는데 소리 질러야지. 안 지르면 속 타 죽지.”

그러면 어머니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너나 나나 아버지의 성질을 알지 않느냐. 부딪쳐봤자 좋은 것이 없다. 우리 지혜롭게 하자.” 하며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같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어머니에게 싹 달라붙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일은 무서워서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너무 좋아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시대가 바뀌어서 엄마가 시켜도 돈을 받지 않고는 안한다고 합니다. “용돈 줄거야, 엄마?” 그런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무는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이고, 성자의 역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도 안보이고 성부도 안보이니까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는 역사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육으로 보여주는 실존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똑같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는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똑같다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커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성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실존에서 나타내며 일을 하게 되면 그 때 자동적으로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땀을 많이 나게 하려면 땀 것 없습니다. “땀 나라. 땀 나라.” 그런다고 땀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줄줄줄 땀이 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존 인물로 커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말한 것이

겠습니까.

결혼 하고 첫날 저녁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보 우리 같은 사람을 낳지.”

“나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을 거야.”

남자는 ~~여자에게~~ 당신 같은 아이를 낳자고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 같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남의 첫날 저녁에 가서 엿들은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다 배웠습니다. 결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결혼하고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혼자를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하건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건대” 그렇습니다. 단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자. 우리가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26절만 봐도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그러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세상에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사 34:16). 혼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혼자 있으면, 남자 혼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혼자 있으면 너무 너무 심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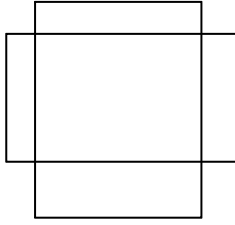
오늘 아침에 이 단상 앞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체(一體)’라는 말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일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일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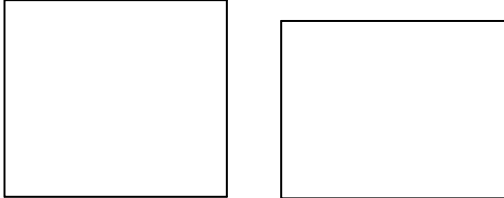
A)



B)



C)



제일 처음 보여준 것이 A)입니다.

“이게 뭐냐?”

“네모진 것이지요.”

“이게 일체다.”

“그러면 일체가 아닌 것은 뭐죠?”

“일체가 아닌 것은...” 하시면서 두 번째 B)의 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체된 것은 하나 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A) 도표를 보이시며 이게 부부일체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일체가 되어야 돼. B는 일체가 아니지 않느냐.” 첫 번째 도표처럼 된 것이 부부일체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부일체, 사랑일체, 주님과 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A)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B) 포함되지도 않고 완전히 각각인 것(C)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포개져라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한 집에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서로 트러블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A학점, 두 번째는 B학점, 세 번째는 C 학점입니다. 1등 2등 3 등입니다.

이제 일체에 대해서 알겠지요? 그런데 일체 되었어도 뜻은 하나이지만 개성에 의해서 각각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일체되고, 예수님과 일체되고, 성령님과 일체되고, 선생님과 일체되어야 됩니다. 사랑일체, 진리일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르게 가면 일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나와 모든 사람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체가

되면 같이 따라 갑니다. 일체가 되지 않으면 끊어져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라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또 아들이 엄마를 낳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성부, 성령, 그 다음에 성자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소개할 때 “이 분은 아버지입니다. 이 분은 어머니입니다. 이 분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성부 성령 성자 해야지, 성부 성자 성령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언어가 순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입니다. 성약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신부입니다. 우리를 신부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본체를 말할 때는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쪼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이름 마지막 자가 석(析) 자인데 쪼갤 석(析)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두고두고 떨어집니다. 천년을 가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내적 말씀이 앞으로 20년간 계속 떨어집니다. 차원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1000년 동안 가면서 영적 입장에서는 더 엄청난 말씀이 떨어집니다. 또 들은 것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잠언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했으니까 이제 성령의 잠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나에게 이렇게 잠언이 왔습니다.

- “**감동이 성령의 말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편지 써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안 보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편지 써라” 했더니 여러분이 거기서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편지 썼습니다.”

“내가 새벽에 편지 써라 하고 엄명을 했는데 그게 네게 편지 써라 하는 감동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감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표로 하다가 말씀으로 하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가서 불쌍히 여겨라” 하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이 옵니다. 이미 그것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그것을 듣고서 내 마음으로 진동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감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받고 교회에 왔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감동으로 교회에 가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하여 본인이 감동받았는데도 안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애야 교회에 가라. 집에 있으면 뭐하냐. 교회에 가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나가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몰라서 거역했다 칩시다. 오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도 거역하면 이제는 알고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두려운 마음이 탁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두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두려움이 왔다면 그 때는 흑암이 “저 새끼 죽일 놈!”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전달이 온 것입니다.

월남에서도 가다 보면 금방내 적이 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이미 적들이 쏘려고 결심을 하고 말들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적이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고 밤에 와서 나와 우리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에 한국 적을 봤는데 그 때 총을 잡아 당겼으나 안나갔다, 그래서 감동받고 내려왔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은 어디에 있을 때 어떤 나쁜 놈들이 나를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때 육신이 들은 것이 아닌데 ‘저 놈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때에 즉시 위치를 떠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다가 위험한 순간의 감동이 딱 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영감을 꼭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육감보다 나으니까 100분의 1 영감을 꼭 표상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감동되는 대로 타다닥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감동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막 부딪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녹음기에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저 기계가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말을 막 받아들여서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들면 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고 그런 감동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은 편지를 읽고서 예수님께 “애들이 영화를 보고 너무 너무 분개하게 여기고,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편지가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내가 편지에다 답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편지 중에 애들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너무 화가 난다. 너무 분개한다. 또 이 시대 선생님이 당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예수님!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야기 해주려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옛날에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이 지금 어떠신지요?” 했더니 “이 시대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저 신부들이 돼서 결혼도 않고 열심히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산다 하고, 또 나와 이들이 뛰는데 지금 그것이 생각나겠냐. 이 잔치 집에서 옛날이 생각나겠냐. 안 나지! 옛날 생각 안 나고 기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써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옛날에 고통 당한 것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이 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열심히 뛰겠다, 평생 그냥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데 그것이 생각나겠느냐. 안 나지. 그러나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되고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이 생각난다. 그 놈들도 그러더니 저 놈들도 또 저 짓을 하네 하게 된다.”

지금도 그렇게 이성으로 타락되고, 말을 안 듣고, 선생님 절대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 가인들, 가라지들이 생각납니다. 저도 또 가라지 될까 걱정된다 그럽니다.

‘저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가라지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며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듣고 결심하고 잘 따라 오는 사람들은 기억나고 오직 기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고 하니, “**감동은 성령의 말이다.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동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감동은 주의 말씀이다. 감동은 선생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감동 받았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잘못 감동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동주고 귀신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꼭 물어봐야 합니다.

“꿈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이렇게 하라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 이름을 줬다. 내 영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했다고 한다.”

“꿈에 누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 내가 나타났다.”

“꿈에 날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뭐니까.”

“아, 그거 내가 그렇게 한 일 없어! 아니다. 하지 마!”

이와 같이 늦더라도 내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그냥 하지 말고 큰 것은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하게 되면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물어보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는 것은 감동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압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감화, 같은 언구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이렇게 표현하듯이 바로 성령을 신약 시대 때도 딱 쪼개서 구분을 못했습니다. 성령 성신, 헛갈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성신, 성령을 받으라! 신, 하나님이 신을 받으라 했습니다.

1)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매 큰 역사를 일으켜 나갔다고 했습니다 (삿14:6).

2)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했습니다.

감동된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더라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되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막 했는데 지금 우리 섭리는 현금했으면 이름을 적어 놓고 얼마 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니가 이 만치 했냐.”

“저 100만원 했는데요.”

“그런데 니 앞으로 50만원이 들어왔다. 그것 누가 떼어 먹었다. 내가 알아볼게.” 그러합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감동돼서 해야 됩니다.

3)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었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때려 부수지 않았습니까.

4)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감동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손에 아무 것도 든 것이 없는데도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힘이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힘이 생깁니다.

선생님은 오늘 설교가 끝나도 계속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찍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각 나라 파트별로 찍어다 줘야 하고, 한국도 교역자들 교육시키는 동영상을 찍어야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 5-6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5)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기도해줬더니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울 왕이 아꼈을 때 기도하니까 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 올 때 다윗이 때려 죽였습니다.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6)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감동되니 수레를 타고 달리는 그 나라 왕 아합보다 더 빨리 궁궐로 달려갔습니다(왕상18:46).

신에 감동되면 부지런해지고 빨라집니다. 감동 안 되면 게으르고 머리가 빨리 안돌아갑니다. 신에 감동되면 머리가 벼룩 벼룩 돌아갑니다. 신에 감동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에 감동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의 감동을 안받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늦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하려면 신의 감동을 받고 해야 됩니다.

7) 에스겔 3장 14절을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하

시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보니 거죽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은 뼈다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외치니까 다시 살아났더라 했습니다 (겔 37장).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육적 부활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심령의 부활, 행실의 부활, 새로운 역사의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귀에게 이끌리어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 받아도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조건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손을 못 대게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9)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성령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에도 말하고 성경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엄마처럼 감동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감동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도 감동을 주십니다.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성약은 성신시대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알아야 됩니다.

10)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인자가 누구니까. 바로 육신을 쓰고 있는 인자, 예수님이 인자가 아니었습니까. 메시아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됩니다! 거역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임금을 거역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임금은 최종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거역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근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 마가복음 13장 11절은 “너희가 어떤 문제를 두고 누구한테 부딪쳤을 때, 그 때 말을 하여라. 그러면 성령이 말할 것이다. 담대히 말하라.” 했습니다.

12)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흥분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되어

흥분이라는 말을 알지요? 남녀가 흥분해서 길 가다가도 끼어 안고 키스하고, 공원에서 뒹굴고 그럽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성에 흥분되고 사랑에 흥분해서 공원에서 막 관계를 갖고 그럽니다.

뉴질랜드에서 공원에 갔더니 선생님 바로 옆에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공원에서는 사람이 보는 데서 이성관계를 갖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원래 담대한데 거기서는 놀랐습니다.

사랑에 흥분되고 사랑에 도취되어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키스가 무엇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키스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길 가다 키스하고, 건널목을 건너다가도 차가 뺑뺑 해도 계속 1분 2분 3분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이성관계를 헛바닥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헛바닥으로 키스하는 것도 이성관계로 칩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성관계를 헛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수천가지 하를 법을 압니다. 법을 모르고는 심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시대 사람을 통해서 심판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13)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음성이 안 납니다. 음성이 나지만 우리는 못 듣습니다.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옵니다.

오늘 말씀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단계로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듣는 것입니다. 감동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요? 감동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14)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금 내가 생각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깐, 영계에 선포하니깐 육계에 있는 육인들이 영으로 받고 육에게 전달하니 감동으로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때 그 말씀, 아 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한 말씀도 감동되니까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그 때 그런 말씀을 월명동에서 했어. 어느 집회 때에 했어. 어느 장소에서 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15)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동의 신, 성령, 주체 신, 상대 신, 여성 신을 받으라!!

16)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오시리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진리의 성령의 신부급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니깐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이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축소시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와 같이 저 하나님께서 세계도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특별히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있다 하면 하늘나라에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있다면 하늘나라에도 남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다, 하늘나라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양빛이 아니고 하늘의 그 말할 수 없는 광채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체 빛을 발하는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물이 있다, 하늘나라도 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 세상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속상했다, 하나님의 천주의 자녀들이 말을 안들을 때 속상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준다! 영적으로는 진리의 영, 육적으로는 선생님이 진리의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영이고 너희는 육이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진리를 가지고 와서 외치니까 여러분이 세계적으

로 모두 따라 오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온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서 “여봐라! 오늘의 설교는 감동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안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동이 돼서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라 하는 것도 “이제 설교 끝나라.” 그렇게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끝나라 하면 나에게 감동이 옵니다. 그만 끝나야 되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자의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단상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곧 감동으로 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감동으로 온다.”

선생님이 월남에 있을 때 한번은 감동도 오고 음성도 들렸습니다. 적을 바로 내 앞에 놓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우리 분대원들이 엄청난 사격을 했습니다. 나는 안 쏘려고 옆에다 쏘고 그랬습니다. 탄 데에다 팡팡 쏘고 그랬습니다. 그 때 내 무기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한방을 쏘면 그 근방이 전멸되는 무기였습니다. M79라고 유탄발사기였습니다. 그것을 쏘면 수류탄 같은 것이 터집니다. 그 때 내가 30발인가 50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쏘았다가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탄 데에다 쏘았습니다. 바위 너머에다 쏘고, 저 너머에다 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의 사람들은 막 췌었습니다.

그 이튿날 시체를 확인하러 갔는데 어디 장소인가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가던 사람이 바위에 올라갔는데 폭 쓰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올라가 보니까 바위 뒤의 큰 나무 뒤에서 그 전날 총을 맞았으나 안 죽은 베트콩이 우리를 쏘 죽이려고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 이구 나는 죽었구나.’ 하고 현기증이 나고 앞이 안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눈만 내밀고 나를 겨냥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서 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쏘봤자 그는 눈만 내밀고 있기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쏠 수 있다 해도 내가 안 쏘았을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 바위 위에서 죽는다.’

그 때가 스물두 살 때인데 그 바위에서 죽을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났습니다. 다른 말을 안 하고 “사- 랑- 하- 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머리 속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러 가면 적이 총을 쏘서 맞아 죽는데요. 재는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쏘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총을 맞고 그에게 수류탄을 까 던지면 죽지요.”

내가 자꾸 사랑하러 가면 죽는다고 했을 때에 두 번째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사- 랑- 하- 라!”

그 소리가 들리고 감동이 확 왔습니다. 그 때, 후닥닥 한 발짝을 뻗을 때 그가 내 여동생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니가 왜 여기 왔느냐.”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여동생이 잡혀 온 줄 알았습니다. 북한 계통으로 잡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끼어 안고 울면서 40분 동안 뒹굴고 그랬습니다.

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나고 감동도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났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감동되고 안하면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고 성령님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표구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음성 들은 것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쳐다보면 그 음성이 날 것입니다. 거기서 “사 랑 하 라”는 음성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 표구를 쓸 때는 이렇게 음성이 난 것을 쓰고, 감동 받을 것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받는 문구를 원하면 나한테 이야기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는데 감동받았으면 음성을 들은 것이 다 했습니다. 감동으로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 보니까 녹화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동영상 찍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니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물이 아니고 화면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제 2의 ‘나’라는 것입니다. 제 2의 선생님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단계 다운되었을 뿐이지 실제 제 2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왔으면 제 2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

“가 재를 관리 하라. 붙잡아줘야 된다.” 이런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즉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을 잘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라, 네 밑에 두고 길러라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밑에 두고 총리 대신을 시키고 엄청난 일을 시켰습니다.

요셉도 바로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와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반기 20년 동안에도 이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대하려면 더 가깝게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여러분이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인봉을 계속 떼고 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가깝게 왔으나 못마땅하게 대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저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데 일을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내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시중드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내 앞에 와야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가깝게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성령님을 위하고 섬기고 받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봤든지, 직접 영으로 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 이야기를 하도 잘해주고 하니까 성령님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확인해 주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징적으로만 봤지 못 봤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혹은 큰 임금이나 주권자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봤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의 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꿈에 직접 나타날 때 있고,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나도 제일 처음에 산에서 공부할 때 국민학교 선생이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 선생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징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를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면 내가 집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가르친다”고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 잘못됐어. 산에 가지마. 큰일났어. 예수님이 감히 네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기 때문에 상징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우리 선생이 나를 가르친다. 우리 노 선생이 나타나서 나를 가르친다.” 했을 때 우리 형들이 “너는 국민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 분이 또 가르치러 왔나보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너 잘못됐다. 큰일났다.” 했습니다. “너 잘못 본 것이다. 예수님으로 사탄이 나타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를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줄이고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면 너희가 하늘 보좌를 보기도 하고 그 앉은 자도 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고 신령하니까 밧모섬에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에 앉은 자를 보았다 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앉으신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가 크게 외치니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모두 할렐루야 그러하옵나이다 맞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이 되어야 멀리 있는 나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꿈으로 많이 본다고 하는데, 나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막 내 앞에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지요. 내가 물어봅니다.

“너 육의 이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자기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영을 보면 영이 육신과 닮기는 닮았지만, 여러분의 어머니와 자녀가

닭기는 닭았지만 조금 겨우 알아보게 닭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조금 닭아 있지 아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이 키도 더 크고 훨씬 멋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은 육신보다 훨씬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영은 육신보다 훨씬 보기 싫은 영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영이라도 예쁘라고 했는데 실망이네, 절망이네. 아 어떻게 하지..’

조금 더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말을 해주겠습니다. 영도 미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해야 미인이 됩니까. 육신이 미인 되듯이 영도 미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또 해주겠습니다. 오늘도 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부에 대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 성령 성자! 메시아는 성자급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동의 빛을 발하라입니다. 여러분들 감동받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왜 감동을 받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되 말씀을 받은 자가 직접 말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감동되는 것입니다. 말을 거부하면 감동이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악한 자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악한 자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불신이 바로 사탄의 주관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사탄의 마음으로 가지 않고 불신의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2의 입장의 불신을 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안하면 안 됩니다. 제 2의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생소하다,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합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가정에 엄마 없이 여러분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대의 세계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자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자 천사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도 너무너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안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단계에서 하늘나라에 안 갔다 왔겠습니까.

감동을 받는 대로 꼭 금주에 수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감동 받은 대로 안 해서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선생님도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이 인성으로 안했습니다. 요즘은 꼭 물어봅니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야기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그러고 결정합니다. 무조건 안하면 안 됩니다.

목회하라, 뭐 하라 감동했는데, 주일날 수요일 날 말씀에서 감동했는데, 선생님이 편지로 감동을 시켰는데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성령이 말씀한 것을 안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편지를 하다가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지를 했는데 편지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꼭 오기를 원했는데 편지가 안와서 한번 더 해볼까 했으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편지를 거진 줄였습니다. “내가 바빠서 한 줄만 쓴다. 지금 바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은 대로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동시키면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감동시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센터로 감동을 시키고, 선생님이 감동 시키면 이 시대 선생님의 센터로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도 그 센터대로 감동을 시킵니다. 나에게 감동을 시켜서 단상에서 외치게 만들고, 또 여러분에게 직접 감동을 시키게 말씀하셔서 감동되게 합니다. 모든 일에 감동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도표는 큰 것 보내지 말고 작은 도표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작은 도표를 갖다 놓으면 내가 그 것을 보면서 30개론 강의를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작은 도표를 보내주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서 강의하듯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강의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 엄청난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서류는 많이 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디는 150장 남았

습니다. 계속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디를 보고도 바빠서 편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못가는 것은 내가 바빠서 못해 줄 뿐이지 마음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편지대로, 네 믿음대로 진행하라. 내가 또 시간이 있으면 편지 할테니까. 니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허락했으니까 우선 그냥 하라.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해 줄테니까.”

요즘 편지 속에 보니까 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보러 온다고 전화가 와서 보러 오라 했더니 강도로 변해서 두드려 패고 칼로 찔렀는데 칼이 부러져서 안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직을 하는 목사라 돈이 없다.” 했더니 “살려주겠다. 억울하다. 맞고 끝내자.” 하며 두드려 패고 칼로 찔렀는데 그 때에 그 실한 칼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못 찔렀답니다.

여러분들, 집에 누가 오면 정말로 문단속을 잘하고 혼자 있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감동이 왔는데 감동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자가 온다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 때 성령 엄마가 “애야!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동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모르면 무지한 것입니다.

성령 엄마가 “애야 조심해. 남자 온다. 세상이 험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실행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감동을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감동받고 실천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번 주에 감동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배우고 열심히 해서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선생님에 해당되는 감동을 한주일 동안 받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시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이 깊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역자들이 더 천천히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 하는 사람들, 치어하는 신입생들이나 예술단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모두 분위기에만 젖지 말고 30개론을 철저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씀을 철저히 배워라. 그 말씀은 내가 세상에 선포한 말씀이니 말씀 내용의 근본도 모르고 분위기만 타지 말아라. 말씀 내용을 알고 시대 분위기에 젖어 들고 시대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

꼭 다시 배우고 또 듣고,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철통같이 말씀을 배우고, 특히 역사론을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깨닫고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알고 근본을 깨닫고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오죽해야 20년 동안 천천히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에 감동되는 것을 금방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어제 그제부터 계속 70-80시간을 배운 것입니다.

이 엄청난 30개론은 20년 동안 거진 실천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천 안하고 먼저 배우니까 배우고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나와 같이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잘 곳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고 가니까 그것만 전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며, 나는 영계까지 1000년 동안 전할 것입니다. 육계에서 내가 힘이 없을 때까지 전해도 사람들이 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 데 안주고 나한테만 계속 주니까 나한테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감동을 받고 “앞으로 섭리가 망한다. 없어진다.” 자꾸 그래서 일부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평소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환란기에 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감동되면 역사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 도> 오늘 감동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감동은 성령이 특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또 시대를 끌고 가는 자를 통해서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감동 감화를 받은 이들에게 성부와 성령의 역사와, 성자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